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월일	이름	나이	성별	지부
8/28	김영철	19	남	천천	"	장명식	17	남	주주	"	최상호	51	남	성북
"	이해철	20	남	천천	"	김용섭	18	남	광주	"	최영욱	21	남	성북
"	이해응	14	남	천천	"	김장숙	25	남	주주	"	최정운	26	남	광주
"	이해승	10	남	천천	"	김명숙	10	여	주주	11/13	최이규	20	여	광주
10/2	강영일	28	남	동천	"	김애숙	8	여	광주	"	최운명	26	남	대천
"	강현숙	21	남	북부	10/31	김희자	22	여	동부	"	최지성	25	남	전산
"	조영현	23	여	북부	"	김민성	23	여	동부	"	최순호	26	남	산산
10/3	황재영	26	남	등포	"	박동순	26	남	등포	"	최정영	18	남	마마
"	이철상	23	남	서부	"	김완순	24	남	등포	"	최영욱	16	남	여여
"	김영숙	17	남	서부	"	조용화	20	남	등포	"	최순선	16	여	여여
"	김순숙	14	여	서부	"	김인철	14	남	등포	"	최재경	14	여	여여
"	고순일	14	여	서부	"	김형철	24	남	등포	"	최지속	17	여	여여
"	박성수	18	남	서부	"	김분화	20	남	천천	"	최홍대	17	남	북부
"	박성수	22	남	서부	"	김주형	20	여	북부	"	최은석	17	남	북부
"	김배주	11	여	서부	"	이영람	20	여	북부	"	최우철	19	남	신신
"	김덕주	28	여	서부	"	김현순	57	여	삼청	"	최현철	21	남	산산
"	박봉익	15	여	서부	"	이순현	46	여	삼청	"	최길우	18	남	군군
"	박인숙	18	남	서부	"	이환현	9	여	삼청	"	최우중	28	남	군군
"	신원두	36	남	서부	"	이정환	22	여	삼청	"	최찬영	18	남	삼삼
"	정원술	18	남	서부	"	김진숙	27	여	삼청	11/28	최이승	17	남	삼삼
"	한일빈	23	남	서부	"	김혜문	19	여	삼청	"	최재영	34	남	삼삼
"	김기영	24	남	서부	10/26	김혜문	20	남	천천	"	최해경	20	남	삼삼
"	김기일	17	남	서부	"	김창원	25	남	대천	"	최경동	8	남	삼삼
"	김기일	30	남	서부	10/30	김희준	16	남	대천	"	최희황	17	남	삼삼
"	김기일	24	남	서부	"	김희준	19	남	대천	"	최희황	23	남	삼삼
"	김기일	20	남	서부	"	김희준	15	남	대천	"	최희황	26	남	삼삼
"	김기일	40	남	서부	"	김희준	15	남	대천	"	최희황	18	남	삼삼
"	김기일	18	남	서부	10/31	김희준	21	남	대천	"	최희황	18	남	삼삼
"	김기일	18	남	서부	11/7	김희준	19	남	대천	"	최희황	30	남	삼삼
"	김기일	29	남	서부	"	김희준	19	남	대천	"	최희황	18	남	삼삼
"	김기일	21	남	서부	"	김희준	18	남	대천	"	최희황	30	남	삼삼
"	김기일	29	남	서부	"	김희준	20	남	대천	"	최희황	20	남	삼삼
"	김기일	29	남	서부	"	김희준	24	남	대천	"	최희황	34	남	삼삼
"	김기일	41	남	서부	"	김희준	28	남	대천	"	최희황	9	남	삼삼
10/30	김기일	31	남	서부	"	김희준	33	남	대천	"	최희황	36	남	삼삼
"	김기일	18	남	서부	"	김희준	28	남	대천	"	최희황	25	남	삼삼



인하공대에 물문 클럽 조직

인하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교회 회원 9명은 지난 9월 1일 자리를 같이 하여 학교에서 선교사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기로 하고 김석연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는 창립 모임을 가졌다. 인천지부를 도우고 물문경, 성경 등을 중심으로 선교사들과 신앙적인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있는 이들은 오광근(서부지부 소속)형제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I. I. T. King's Men"이라 학교에 등록을 끝낸 바 있다. 이들은 정기회원은 회원에 한한다고 회칙을 만든 바 있다.



남부 지방부장에 안 승언 장로

한국 선교부는 지난 12월 17일 재미 교포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안 승언 장로를 배 영천 형제의 후임으로 남부 지방부장에 임명하였다. 일신상의 사정으로서 사임한 배 영천 형제의 후임으로 제 2대 남부 지방부장이 된 안장로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방대회의 지지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만으로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공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증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간 그는 동부, 광주, 목포 등지에서 복음

을 전도해 왔었다. 그는 다음 지방대회에서 지지되기 전까지 배 수열, 정 민호 형제를 보좌로 불렀으며 서기로는 방 춘성 형제가 봉사하고 있다.

양형제 사진전 갖다

동부지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양 해윤 형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국립 공보관에서 있었던 뉴 포토 클럽 사진전에 작품을 내놓아 호평을 들었다. 횡단로, 태생, 파벽(흑백) 등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맞은 그는 전공인 건축분야의 총망되는 신인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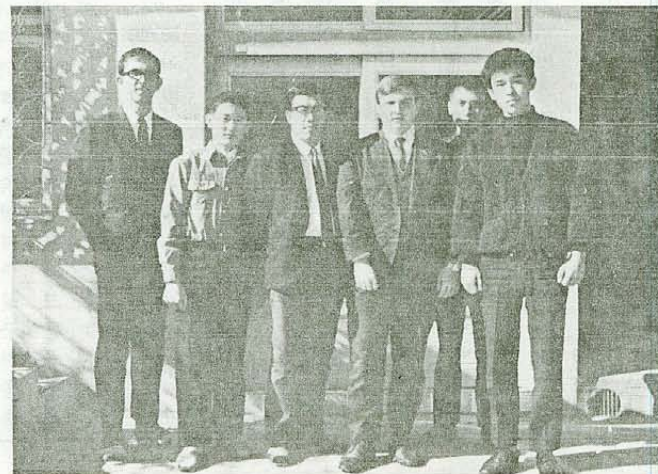
김 미자 자매 웅변대회 우승

청운지부에서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 미자 자매는 지난 11월 13일 숙명여자대학교 주최의 전국 남녀 영어 웅변대회 고등학생부에서 수석으로 입상하였다. 진명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그녀는 "U.N.을 지지하자"란 제목으로 출전하였었다.



인천지부장에 이 용상 형제

지난 10월 25일 지방부장에 의해서 이형제에 대한 지지가 몰려졌는데 전임 허 재형제는 서중양 지방부 평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지부장 이형제는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고장에 나와같은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여수지역 개척

한국의 남단 항구도시 여수에 지역이 개설되었다. 광주 목포와 부산, 마산, 진해 등지에서 출장 선교를 할 수 없었던 곳을 메꾸게 되는 여수지역의 개척은 지난 11월 15일 크리스챤 장로와 너빌 장로가 도착하므로써 시작되었다.

이들은 17일 종고산에서 여수를 헌납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이 우영, 스펜서 장로와 함께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물몬이란" 전시회를 문화원에서 베풀었으며 이 전시회는 천여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보였었다. 호남지방부 산하에 들게 된 여수지역은 지난달 20일 21명이 참석하는 집회로 성장하고 있다. 여수지역은 동산동 496번지에 위치해 있다. 사진은 11월 22일에 가진 여수의 첫 모임을 만리교



목포지부

유달산 기슭에 자리한 목포지부는 가정 복음교육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매주일 가정 복음교육을 쉬지 않고 있는 형제들은 지부장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으며 자매들은 상호 부조회 활동을 통해서 지부예산과 건축기금을 모아가고 있다. 올해 신전 방문 시에 신조들에게 신전 의식을 베풀자고 계획한 이들은 어느 지부보다 활발한 계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태문 형제 결혼

녹번지부 회원이며 서중앙 지방부 상향회 담당 평의원인 이 태문 형제와 서부지부의 원육자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12일 12시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주례는 선교부장이 하셨다.



남부지방부 지방대회

남부지방부는 지난 11월 28, 29일 제12차 지방대회를 부산지부에서 가졌다.

오후 3시 전체 역원회로 시작된 지방대회는 6시 45분부터 신설된 마산과 동래지부를 비롯한 5개지부가 참가한 가운데 약 3시간에 걸쳐 지방부 제3회 로드 쇼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부산지부는 "또 하나의 거룩한 죽음"으로 삭년에 이어 2연승을 거뒀다.

29일에는 8시부터 전체 지부장단회를 가졌으며 10시부터 있었던 총회에서 회원들은 김 명수(동래), 김 홍점, 김 백주(동구), 김 동우, 조 학현, 이 오영규(마산)형제를 장로로 지지하였다.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며..."(교성 1:21)를 대회의 주제로 택했던 남부지방부 대회에는 대구, 동구, 동래, 마산, 부산, 진해의 220여 성도들이 참석하였었다.



손 승은 형제 결혼

동부지부의 손 승은 형제와 김 인숙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26일 1시 동부지부에서 있었다. 동중앙 지방부 상향회 담당 평의원으로서 있는 손 형제의 결혼은 선교부장의 주례로 집행되었다.

중앙 지방부 성탄 축하 모임

12월 23일 동서 중앙 지방부는 각기 동부와 서부지부에서 성탄 축하 모임을 가졌다. 선교부장, 지방부장 말씀과 동중앙은 각지부에 예산을 위한 자선 오락회를, 서중앙은 임 규선 형제가 지휘하는 지방부 합창, 각지부 합창단의 성탄 노래 모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24일 지방부는 지부별 모임을 가졌다.

서중앙 지방부 송년 장로 정원회

서중앙 지방부 장로 정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오후 7시부터 청운지부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초청되어 말씀을 듣고 식사와 오락 순서를 가졌던 이날 선교부장님은 "새해에는 8쌍이 신전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모두는 계보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고 했었다.



서중앙 지방부 바자회

지난 10월 30일 서중앙 지방부 산하 각지부의 합동 바자회가 서부지부에서 있었다. 청운지부 상향회의 "경음악 순서"를 2부 순서로 준비했던 이날 모임에는 1년간 각 지부의 자매들이 이 모임을 통해 준비한 400여점이 출품되었었는데 이날 출품된 400여점은 전부 매진되었다.

이날의 이익금은 대개의 경우 해당지부의 건축기금으로 회사되었다. 사진: 청운지부 자매들이 판매 준비에 바쁜 때를 보내고 있다.